

■ 여수 갑

4선의 김성곤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선거구는 무주공산이 됐다.

이 선거구는 지역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공략해 가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새누리당 신정일(50), 더민주 송대수(60)·이용주(47)·김점유(53)·강화수(42), 무소속 김경호(49)·김영규(59) 후보 등 7명이다.

치과의사인 신 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들을 상대로 표발을 다지고 있다. 더민주 여수갑지역 수



신정일 치과의사



강화수 전 정책보좌관



김점유 전 도의원



송대수 전 도의원



이용주 변호사



김경호 제주대 교수



김영규 전 시의원

석부위원장인 송 후보와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특별보좌관 출신인 김 후보,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정책조정행정관인 강 후보 등 4명은 조직력을 갖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주대 교수인 김경호 후보와 전 여주시의회 의장인 김영규 후보도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여수 갑 선거구는 대선인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민심을 어떻게 공략해 가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신당 창당에 따른 신당 돌풍설이 겹치면서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도 예상된다.

김성곤 불출마로 무주공산 ... 입지자 난립

■ 여수 을

국민의당 주승용(63) 의원의 4선 진입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더민주를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합류한 주 의원은 지역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더민주에 대한 민심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주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더민주 공천권이 어느 후보에게 주어 지느냐는 점은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민주에선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출신인 백무현(51) 후보가 지역 표발을 다지고 있다.

이에 맞서 외교관 출신인 박종수(58) 중원대 교수와 전 여수세계박람회 여수



주승용 국회의원



심정우 부대변인



백무현 전 대변인



최무경 전 시의원



박종수 중원대 교수



이광진 회사원



황필환 여천JC감사

유치위원회 집행위원 출신인 이광진(50), 여천청년회의소 감사인 황필환(34), 전 여수시의원인 최무경(49)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의 민심을 다독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심정우(56) 중앙당 부대변인 출신인 심정우(56) 중앙당 부대변인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및 주요 SOC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 지역구는 주 의원과 더민주 후보간 대결구도가 점쳐지는데, 국민의당 돌풍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주 의원의 4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 주승용 4선 진입 여부 최대 관심

■ 순천·곡성

지난해 재보선에서 야당 텃밭에 새누리당 깃발을 꽂은 이정현(57) 의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 "호남에 예산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는 민심이 극단적 양분 상태다. 이 의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배는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 신당 창당이 잇따르는 등 민심을 거스르는 야당의 행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선 호재다.

더민주의 지난 재보선 패배 후 비례대표인 김광진(34) 의원을 당협위원장으로 세우고 탈환을 노리고 있다.

또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에 패한 서갑원(52) 전 의원에 재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



이정현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의원



고재경 정책위의장



김선일 전 보좌관



노관규 전 순천시장



서갑원 전 국회의원



구희승 변호사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뒤 17대·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더민주 소속 노관규(55) 전 순천시장과 순천대 겸임교수 김선일(52), 국회의원 강기정 정책보좌관 출신인 고재경(47)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민심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소속인 박상욱(51) 전남교육 미래위원과 손훈모(46)·구희승(53) 변호사, 정표수(60) 순천대 초빙교수도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

더민주 소속 후보자들의 세력 규합 여부와 중앙당의 공천 여부에 따라 새누리



박상욱 시민활동가



손훈모 정책위의장



정표수 순천대교수

당 이정현 의원과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반면 이 의원의 고향인 곡성이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순천과 분리될 가능성이 커 순천에서 이 의원의 선전이 주목된다.

與 이정현 재선 가도에 9명 도전장

■ 나주·화순

이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선거구 획정이다. 선거구 문제와 관련,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각에선 나주·화순을 해체한 뒤 인근 지역인 무안·신안 등과 합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선거구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재보선에서 당선된 더민주 신정훈(51) 의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신 의원과 더민주 공천경쟁에 나설 주자로는 박선원(52) 전 참여정부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한승태(55) 의료사회복지 효성요양병원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김중우(57) 전



신정훈 국회의원



김중우 전 조합장



한승태 요양병원 대표



손규주 변호사



김대동 전 시장



노정재 전 근로감독관



홍기훈 창당발기인

나주동강농협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국민의당 주자로는 손규주(45) 변호사가 눈에 띈다. 서울 행정법원 판사 출신인 손 변호사는 젊은 패기로 지역구를 누르고 있다. 무소속 후보인 홍기훈(63) 전 의원과 김대동(70) 전 나주시장도 예비후보를 등록한 뒤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

노정재(64) 전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지역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한 나주 민심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또한 대부분 나주 출신 후보가 출마한다는 점에서 화순 유권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인구 급증 나주 민심 최대 변수

■ 담양·함평·영광·장성

이 지역구의 변수는 구례와 곡성이 어느 선거구로 포함되느냐 여부다.

19대 총선에서도 한 차례 선거구 재획정으로 혼란을 빚었던 지역구인 만큼 이번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출마 예정자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현재로서는 예비후보 등록자 또는 뚜렷한 총선 행보를 보이는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보선에서 당선된 더민주 이개호(56)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가운데 정기호(61) 전 영광군수의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위원회 행정관과 전남도행정복지사 등을 역임한

이 의원은 보선에서 당선된 뒤 원내부대표를 맡는 등 당내 입지를 점차 다져가는 중이다. 이 의원은 또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맡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 이슈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형욱 서북 전남발전연구원장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강 원장은 현재 영광에 서북 전남발전연구원 사무실을 차린



이개호 국회의원



강형욱 연구원장



이중효 효창산업대표



정기호 전 영광군수

이개호 재선 도전...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촉각

인구 하한 미달 ... 선거구 재획정이 최대 변수

여기에 김철근(47) 동국대 겸임교수는 김승남 의원과 공천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김범태(61)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장귀석(60) 당협위원장



이개호 국회의원

강형욱 연구원장

이중효 효창산업대표

정기호 전 영광군수

뒤 지역민과의 접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이중효(55) 효창산업 대표이사의 출마가 점쳐진다.

이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현재로서는 예비후보 등록자 또는 뚜렷한 총선 행보를 보이는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보선에서 당선된 더민주 이개호(56)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가운데 정기호(61) 전 영광군수의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위원회 행정관과 전남도행정복지사 등을 역임한



김승남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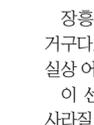
신문식 국회의원



장귀석 당협위원장



김범태 상임대표



김철근 동국대교수

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 장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표발을 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해남·완도 출신... 선거구 조정에 달려

■ 장흥·강진·영암

장흥·강진·영암도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돼 사적합 가능성이 높는데, 지역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변수다. 또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동로 전현직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도 불가피한 점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선 후보군들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은 뚜렷한 총선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무안·신안

더민주 이윤석(55) 의원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더민주 서삼석(56) 전 무안군수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선거구 재획정과 국민의당 돌풍이다. 이 의원이 사실상 당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같은 당 소속인 서 전 군수간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서 전 군수와 백재욱(51) 전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2명. 주태문(49) 더민주 전남도당 사무처장도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박준영(69) 전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선 주영순(69)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흥·강진·영암

장흥·강진·영암도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돼 사적합 가능성이 높는데, 지역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가 최대 변수다. 또 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동로 전현직 의원과의 생사를 건 한판 대결도 불가피한 점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구에선 후보군들의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은 뚜렷한 총선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윤석-서삼석 리턴매치 최대 관심



이윤석 국회의원



주영순 국회의원



백재욱 전 국장



서삼석 전 무안군수



주태문 사무처장



박준영 전 전남지사

이번 총선에서 이 선거구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선거구 재조정. 인구하한선에 걸려 목표와 통합이 이뤄져 목표감·을 선거구로 나뉠 공산이 크기 때문. 만약 선거구가 예상대로 나뉘고 일부 후보군들이 신당에 합류할 경우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구 역시 '더민주' 당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이번 총선 승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 해남·완도·진도

이번 총선에서 이 선거구의 최대 변수는 선거구 재조정이다.

특히 3선 출신인 더민주 김영록(60) 의원이 당 잔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의당 후보와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후보군으로 김 의원의 출마가 확실시된 가운데 민주당 윤재갑(61) 전 해군군사령관과 무소속 윤영일(58)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영권(48) 두영무역 대표, 박종백(55) 전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아대위



김영록 국회의원



명욱재 새누리 위원장



윤재갑 전 해군사령관



김영권 두영무역대표



김종식 전 완도군수



박종백 전 자문위원



민병록 효산건설대표



윤영일 전 교육위원

원회 자문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담급질에 나선 상태다. 새누리당에선 명욱재(70) 새누리당 해남·완도·진도 당 협위원장인 윤재갑(61) 전 해군군사령관과 무소속 윤영일(58)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영권(48) 두영무역 대표, 박종백(55) 전 노무현대통령직속 동북아시아대위